

남서울 목장 모임 해설지¹⁾

(4월 10일)

Words 말씀

레위기 10:1-11 을 읽어 보시다

성막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삶을 향한 순종의 요구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두 아들의 불순종이 가져온 재앙도 경험합니다. 거룩함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1. 불순종으로 아론의 두 아들이 심판당하자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한 지침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1-7절).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화를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안에 있는 자신들의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들은 '번제 단 위에서 피운 불'(16:12) 즉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9:24)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멸시하는 행동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3절)에 반하는 불순종이었다. 이에 여호와와 불이 그들을 삼켰다. 제물을 삼킨(9:24) 불이 제사장들을 삼켜버렸다. 영광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었다.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순종을 통해 영광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의 불순종으로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다. 순종이 생명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2 모세는 아론에게 이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 설명합니까(3절)?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백성 가운데 나타내고 가르쳐야 할 존재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자들도 또한 거룩해야 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하는데 그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받은 특권이 컸기에 심판 또한 엄중했다. 둘째, 제사장들의 첫 범죄를 단호하게 정죄하여 경계를 삼게 하신다. 제사장 가문에 내린 이 무서운 형벌은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온 백성에게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3 하나님은 죽음을 면하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하십니까(4-7절)?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 대신에 가까운 친족에게 장례를 맡겼다. 제사장에게 시체 만지는 일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관유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애도 기간에 성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심지어 아들과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하게 하신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

에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취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제사장의 경우,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쓴 관을 벗거나 세마포 제의를 찢는 것은 제사장 직분의 중단이나 거부를 의미했기에 이 같은 행동은 금지되었다. 그리고 만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공적으로 조문과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징계)에 대해 오해하거나 그릇된 생각(의심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눔1〉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럴듯한 동기와 명분으로 말씀에 대한 부주의나 불순종을 정당화한 적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십니다(8-11절).

1 하나님은 제사의 존속을 위해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9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 이 명령은 제사장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금하신다. 포도주나 독주(취하게 하는 술)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술을 금하는 규정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제의의 축제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을 주시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직을 인정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2 하나님은 술에 관해 엄격히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0, 11절)?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 술에 관해 규정이 엄격한 이유는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 직무의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는 제사장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그의 직무를 방해할 수 있었다. 또한 제사장은 제사 의식을 집행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할 의무도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임무(신 17:9, 10; 말 2:7)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동에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거룩함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나눔2〉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죄나 세상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정체도 사명도 다 잊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무엇일까요? 특히 돈과 성과 술 문제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